

5·18 30주년 기념곡 무대에 올리는 오정목·임희숙·황호준·김은경씨

‘임을 위한 행진곡’ 주역들 다시 뭉치다

5·18민중항쟁 2년 후인 1982년. 광주시 북구 운암동 소설가 황석영의 집에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 1978년 노동현장에서 일하다 세상을 떠난 고 박기순과 1980년 5월 27일 도청에서 숨진 윤석원 열사의 영혼결혼식을 노래gut 형식으로 담은 ‘넋풀이-빛의 결혼식’ 테이프를 녹음하기 위해서였다.

82년 영혼결혼식 노래gut 녹음

테이프에 실린 곡은 ‘짧은 낮의 노래’ 등 모두 7곡. 황씨가 가사를 쓰고 김중룡이 작곡을 했다. 그리고 극단 광대 회원들이 숨죽이며 노래를 불렀고, 투박한 가정용 버블식 카세트로 녹음을 했다. 그때 탄생했던 ‘임을 위한 행진곡’은 수십년을 살아 남아 ‘시대의 노래’가 됐다.

지난 6일 광주문예회관에서 5·18 30주년 기념작품 ‘오월 광주, 이 땅에 살으리라’ 무대에 올리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상임지휘자 심인택) 연습 현장에는 ‘오월 광주’와 땀 수 없는 인연을 가진 이들이 함께 했다.

이번에 무대에 오르는 70분 분량 관현악 대작 ‘오월 광주 이 땅에 살으리라’는 황석영씨의 아들 황호준(39·중앙대 한국음악과 박사 과정)씨의

작품이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광주의 모습을 담고 싶었어요.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엄마랑 함께 찾았던 기독교병원에서 총맞은 부상자들을 수도 없이 봤고, MBC가 불타던 장면 등도 생생히 기억나요. 지금도 가끔 군인들에게 쫓기는 꿈을 꿀 정도입니다. 작품에서는 5월 영령들을 위로하고, 5월 27일 새벽을 패배가 아닌, 새로운 희망의 시작으로 표현했습니다.”

호준씨는 자신의 집에서 진행했던 ‘넋풀이’ 제작과정도 생생히 기억했다. 우연찮게도 현재 광주문예회관 자리는 당시 황씨의 집터라는 묘한 인연도 있다.

‘오월 광주’ 20일 공연

황씨의 이번 작품에서는 ‘넋풀이’ 녹음 작업에 참여했던 오정목(54·오미디어넷 대표), 김은경(55·전북 익산 중앙교회 목사), 임희숙(50·전남 도교육위원회)씨가 30년만에 다시 ‘임을 위한 행진곡’과 ‘짧은 낮의 노래’ 등을 부른다. 또 경기소리 전공자이자 황씨의 부인인 최수정씨도 함께 참여한다.

“황석영씨 집에서 녹음할 당시 보안과 방음을



지난 6일 광주문예회관에서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과 ‘오월 광주 이 땅에 살으리라’를 연습중인 임희숙·김은경·황호준·오정목(왼쪽부터)씨.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위해 창문에 두터운 커튼을 치고 팬파리, 장구, 기타 하나에 맞춰 녹음을 했어요. 1년 후 좁은 ‘임을 위한 행진곡’이 서울 대학가에서 불려진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후 전남대병원 영안실 앞에 모여있던 박관현 열사 추모 인파가 노래를 부르는 것을 직접 듣고 전율을 느꼈어요. 30

주년이 되는 해 이렇게 다시 모여 노래를 부르니 정말 감회가 새롭네요.”(오정목) ‘오월 광주 이 땅에 살으리라’는 오는 20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무대에 올려질 예정이다. 문의 062-512-539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득용 광주세무서장 ‘사랑의 책 기증’



박득용(왼쪽에서 세번째) 광주세무서장은 최근 광주시 남구 사직나눔드리 작은도서관에서 ‘사랑의 책 기증’ 행사를 가졌다. <광주세무서제공>

김정근도 농기원 국장 공로패 받아



김정근(왼쪽에서 다섯번째) 전남도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과장이 ‘오이데이’ 제정에 기여한 공로로 최근 구례군 시설오이협회(회장 박희석)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송기동기자 song@

박치영 모아회장 전남대발전기금 5000만원

박치영 (주)모아종합건설 회장이 지난 7일 “지역 전문경영인과 차세대 리더 양성을 위한 장학금과 연구 활동을 위해 써 달라”며 전남대 경영전문대학원에 발전기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주)모아종합건설은 현재 시공능력 전국 124위, 광주·전남 13위의 종합건설업체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경영이념으로 하는 지역의 대표적 중견기업이다.

박 회장은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회장과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회장을 맡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출신 학생 100명에 장학금 3600만원

학봉장학재단(설립자 이기학)은 전남 출신 학생 100여명에 장학금 36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재단에 따르면 최근 서울대에 재학 중인 김석순(20·화순군 화순읍) 등 유치원·초등·중등·대학생 등 102명에게 장학금을 개별적으로 지급했다. 과거에는 전달식 행사를 가졌지만 올해는 천안함 사건과 지방선거 등 일정을 고려해 개별 지급을 결정했다.

학봉장학재단은 지난 2006년 화순 청풍출신의 재일교포 이기학(79)씨가 사재 7억7000만원을 출연해 설립한 이후 지난 3년 동안 300여명의 학생들에게 1억여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한편 학봉장학재단은 자본금을 내내까지 1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며, 매년 100여 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지급을 할 예정이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부처님 오신날 평화의 기쁨 함께 하기를”

천주교 김희중 광주교구장 경축 메시지



천주교회가 번역해 출간한 ‘성경’과 성화 ‘최후의 만찬’을 선물한다. 낙산사 측은 답례로 부처님 오신날 봉축편지와 간단한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다.

낙산사 방문에는 김대주교를 비롯해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위원회 총무 송용민 신부, 강디애고 신부, 윤일순 수녀 등 6명이 동행한다. /연환뉴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위원회 위원장인 김희중 광주교구장이 오는 14일 강원도 양양군의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 낙산사를 찾아 부처님 오신날(21일)을 맞아 ‘불자들에게 전하는 경축메시지’를 발표한다.

7일 주교회의에 따르면 ‘불자들에게 보내는 경축메시지’는 교황청 종교간대화회의에서 평화의 의장인 장-루이 토랑 추기경 명의로 발표된 것으로 “전 세계의 모든 불자 여러분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평화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고 말하고 있다. 또 “그리스도인과 불자들은 모두 인간의 생명을 깊이 존중한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우리가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키우도록 노력하면서, 동시에 모든 단계와 모든 처지에 있는 인간 생명의 불가침성, 인간의 존엄성, 이웃사랑과 자존존중에 대한 우리의 공통 확신을 재천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중 대주교는 오후 1시30분 낙산사를 찾아 법주 정념스님과 주지 문무스님에게 경축메시지를 전달하고, 한국

“가족·이웃에게 고맙다·사랑한다 말하세요”

신달자 ‘미안해..’ 펴내



해 강연을 하고 있다. 신씨는 “나 자신도 자식에게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두려워서 하지 못했다”라며 “이번 책을 계기로 이런 당연한 말들의 의미를 생각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표현하면 한다”고 말했다. /연환뉴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성적이잖아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속으로 삼키지요. 이제는 실천으로 옮겨야 하지 않을까요. 자신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동료에게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고 말해 보세요.” 시인 신달자(67)씨가 그동안 행했던 강연 내용과 에세이 등을 엮은 ‘미안해..고마워..사랑해’(문학의문학)를 냈다. 신씨는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대학 등의 요청을 받아 한 달에 10여회 인성을 사는 지혜, 가족 간의 화해 등에 대

광주 관광기념품 공모전

고경주 ‘여름이야기’ 대상



제13회 광주시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고경주(62·고경주 아트주얼리연구소)씨의 죽세품을 이용한 장신구 ‘여름이야기’가 대상을 차지했다.

광주시는 9일 “응모작 총 56종 646점에 대해 심사한 결과 고씨의 작품 등 모두 30점을 입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공모전은 일반분야와 창작분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일반분야 금상에는 고미선씨의 ‘S-Life 전복죽’, 창작분야 금상에는 광주의 진미 김치와 청국장을 이용한 기능식품 김민영씨의 ‘우리밀 쿠키와 컵케익’이 차지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전남대 김철우 교수는 “그동안 공모전에 비해 작품 수준이 높았다”며 “오는 8월

열리는 제13회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까지 3개월 정도 준비기간이 있어 디자인 등 품질을 향상시켜 출품하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모전 입상작은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광주디자인센터 2층에서 일반인에 공개되며, 전국 공모전에서 입상할 경우 상품개발비로 700만~5000만원과 생산자금 융자금 최고 1억원을 지원받고, 한국관광광명품 인증마크가 부여되는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환측

- ▲최석현(그린요양병원 원장·최석현성형외과 원장)·채경남씨 차남 성록군 김재관·정정애씨 차녀 시진양=16일(일) 오후 1시 무등파크호텔 4층(컨벤션홀)
- ▲이석구·박애영씨 장남 원우군 한기민(전남지방경찰청 정보과장)·김순아씨 장녀 은미양=16일(일) 오후 1시 서울 조선호텔 1층(그랜드볼룸)
- ▲최광우(광주시 세정담당관실 과표심사 계장)·김정숙씨 차남 현규군 나성호·이경순씨 장녀 수례양=16일(일) 오전 11시30분 조선컨벤션 3층(컨벤션홀)

동창·동문회

- ▲광산구행정동우회(회장 조동희) 춘계총회=11일(화) 오전 11시

송산원원지. 011-628-7120.

종친회

- ▲탐진회씨 대종회(회장 최동운) 2010년도 정기총회=11일(화) 오전 11시 대성여고 응래관. 011-604-3005.
- ▲한국 범씨회 대종연합회(회장 최기후) 월례회=11일(화) 오후 6시 30분 금남로5가 진도회집. 062-236-3220.
- ▲문화류씨 하정공파 광주종친회(회장 류수택) 유적지 답사=16일(일) 오전 8시30분 모자보건센터 앞 출발. 010-3051-2415.

알림

-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대한노인회 광주 취업지원센터 일자리 안내=광주시에 거주하는 심신 건강한 60세 이상 노인. 주민등록증 지참. 동구센터 062-223-8324. 서구센터 062-431-4529. 남구센터 062-432-0947. 북구센터 062-433-6050. 광산구센터 062-942-0204.
- ▲습관성 도박(경마, 인터넷 도박, 사행성 오락게임, 주식 등) 관련 전문 상담 치료실시=본인 및 직계가족 포함. 상담치료와 입원치료 전액 무료. 전문심리상담가와 임상전문가가 직접 상담. 광주심리상담연구소. 062-527-3400, 3403.

모집

-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무릎아 트럼페터 사원모집=문화예술전문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마케팅부 부장·사원 모집 17일까지, 062-234-

2730.

- ▲(사)녹색전국연합 전남시군지회 회장 모집=전남 시·군 전지역에서 환경정화사업에 관심있는 참신하고 유익적인 자원봉사자 모집. 061-272-2207.
- ▲한국은퇴자협회 사회봉사 회원 모집=현직에서 은퇴 및 퇴직하신 분으로 중·장년의 인권과 권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봉사·헌신할 수 있는 의원 및 전남북지역 지회장하실 분 회원. 062-223-1357, 010-9773-2456
- ▲충만재가복지센터=방문요양·방문목욕·복지용구상담·노인복지상담 일방각종 회원가입 상담. 062-942-9982.
- ▲오치 배드민턴 클럽 회원 모집=오후 7시30분~10시 30분까지 우산중학교 체육관. 010-3624-2141.
- ▲문정 배드민턴 클럽 회원 모집=오후 7시30분~10시30분까지 문

산초·중학교 체육관. 010-3624-2141.

- ▲거동 불편한 어르신 모집=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 불편한 분을 사랑과 섬김의 정신으로 목욕·물리치료 등 제공, 참-더불어 재가노인복지센터(062-266-6321~2)
- ▲형새축구클럽=축구에 관심있으신분 누구나 환영 회원 수시모집(두암동 거주자 대 환영) 010-8216-8585.
- ▲북구 골든벨 축구클럽 동호회 회원 모집=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분. 20세 이상, 선수출신 환영. 010-3608-1060.
- ▲사단법인 효사랑엔 봉사단=뜸교육에 관심있는 회원 교육생 모집. 매주 금요일. 062-369-1230.
- ▲문해 한글과정 자원봉사 여교사·학생 모집=성인한글 초급·중급·고급반, 중입검정고시반 등 월~금요일 오전 9~12시, 오후 2~4시. 062-951-5397.
- ▲전통문화 보전 연구회=한문·예절·다도·시조 등 우리 전통문화를 쉽게 익히고 배울 수 있는 회원

선착순 모집. 북구 중흥 3동 동사무소 맞은편. 062-268-5588, 010-9440-2512.

부음

- ▲송윤암씨 별세 원증·총결씨 부친상=발인 11일(화)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 ▲이아운씨 별세 서창식·숙희·미자·미선·미혜씨 모친상=발인 10일(월)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미음까지 편안함-**금홍장례식장**
☎ 227-4000

故 김광복님(남/88세)
주/부흥 김원표/김숙희/김영희/정미화
김혜복/임진희/김희영/오현주
차/재 김진남/박영림/김진남

휴일	총결 7시
발인	06월 15일
장지	중흥 203호 선영

故 현수애님(여/83세)
주/부흥 민병완/미수영
차/민성

휴일	총결 4시
발인	06월 11일
장지	영학당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남은주차장 - 정갑환 목사!

국가대표 브랜드

프리드

대한민국장례문화

현대종합상조가자랑하는 프리드

가입문의 1688-3740

안대홍대표 권숙영 노우현